

발기부전 치유제

흔히 발기유발제를 필요할 때만 쓰는 임시변통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이 약이 개발될 때만 해도 많은 임상 의사들은 그렇게 믿고 처방했다. 그러나 발기유발제를 꾸준히 사용한 환자들은 이 약이 발기부전을 자연적으로 치유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있다.

40대 초반의 자영업을 하는 P씨는 12년간의 결혼 생활동안 완전하게 발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한 번도 가진 적

이 없다고 호소했다. 비록 사정은 할 수 있었어도 흐느적거리는 부분적인 발기가 고작이었다.

검사 결과 그는 동맥성 발기부전 환자였다. 그에게 트라이믹스라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발기유발제를 주어진 집에서 시험해 보게 했다. 일주일 이 지난 후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찾아와 난생 처음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두 달 후 다시 찾아온 그는 이 효과가 일시적인 게 아닌지 걱정했다.

실제로 발기유발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종종 한다. 원칙적으로 발기유발제는 필요할 때 발기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1986년 이래 많은 성의학자들이 발기유발제를 투여하면 자연스럽게 발기력을 촉진시킨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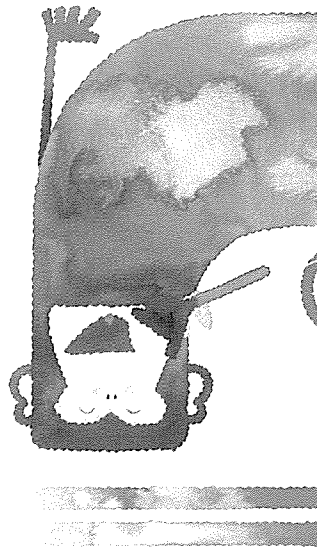
이런 현상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신체 이상에서 오는 기질적인 발기부전이라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심리적인 요소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P씨와 같은 경우 많은 의사들이 기질적인 동맥성 발기부전이라고만 진단한다. 그러나 그도 실직에 대한 불안이나 가정환경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심인성적인 요소가 당연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수도관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어서 안내려갈 때 수압을 세게 하면 이것이 씻겨 내려가듯 발기유발제를 사용하면 피의 흐름을 좋게 해 자연적으로 발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전체 환자의 35% 이상이 더 이상의 주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발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현대과학은 10여 년 전부터 알려졌던 파파베린, 펜롤라민, 프로스타글란딘 외에 최근 새로운 발기유발제를 찾아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VIP인데 이 물질은 프로스타글란딘 등과 마찬가지로 음경에다 직접 주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신경계 전달물질 중의 하나이다.

또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그렇게 효과는 없지만 협심증 치료에 쓰이는 불이는 니트로 글리세린과 고혈압 치료약으로 쓰이다가 그 부작용으로 대머리 치료에도 쓰이는 미녹시딜 연고도 그것이다.



세기적 사랑으로 화제를 부
 렸던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은 성의학적으로 보면
 좀 해학적이다. 1936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
 위를 버린다는 선언을 하고 영국 왕에서 듀크공작으로 돌아간 에드워
 드 8세는 미국 출신 이혼녀인 알리스 심
 프슨과 결혼했다.

몇몇 성의학자들은 그들 부부의 친한
 친구에게서 에드워드 8세가 아주 심한
 조루증에 시달렸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
 었다고 한다. 그래서 별로 예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조루증으로 인한 심한 열등감을 달래준
 심프슨 부인에게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1993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1만 5천 여 명의 미국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
 사를 했다. 이들은 결혼한 부부의 반수 이상이 이혼을 하는 미국 사회에서 이혼하지 않고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는 부
 부들이었다.

조사 결과 모든 부분에 큰 불만을 느끼므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부부가 40%,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대로 결혼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부가 14%, 많은 부분에 불만이 있지만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부부가 14%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조사 대상의 3분의 2가 결혼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 부부였다.

부부생활이 만족스럽다는 부부 중에서도 3분의 1 가량은 성적인 문제로, 3분의 1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 결혼이 유지되고 있는 부부 100명 중 10명 정도만 성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만족하는 행복한 부
 부라는 얘기가.

성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는 부부는 친밀감(사랑)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성행
 위는 결코 자동적으로 발기가 되고 삽입하는 기계적인 관계만이 아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나 조루증 및 여성 불감증 환자를 치료할 때 우선 부부가 함께 관능조점 훈련을 하도록 한
 다. 이것은 성기와 관계 없이 서로간에 온몸의 자극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해주는 훈련
 이다.

우리 나라는 서구와 달리 이혼을 자체는 낮지만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인과 같이 오라고 해도 따로따로 오는 환자들
 이 많다. 함께 오면 창피하다는 것이다.

심프슨 부인의 성적인 이해심에 이끌려 그녀와 결혼한 에드워드 8
 세가 몇십 년 후에 태어났더라면 발달된 성의학의 도움으로 조루
 증을 고쳐 대영제국의 왕위까지 버리는 결혼은 안 했을지
 도 모를 일이다. 72

부부 간의 관능

〈편집자 주 : 이 원고는 설현
 옥 박사의 인터넷 사이트
 (<http://www.sex-academy.com>)에
 게재된 원고를 필자의 동의 하에
 실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02-512-1101)〉

